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인 남성 장애인의 의복실태 조사

박광애¹⁾ · 권영아²⁾

1) 신라대학교 IT디자인 연구원

2)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A Research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lothing of Disabled Men using Wheelchair

Kwang-Ae Park¹⁾ and Young-Ah Kwon²⁾

1) Institute for IT-Design Silla University

2) Div.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clothing of disabled adult men using wheelchair, to understand dissatisfactions and problems in wearing garment, and to construct basic data to development of the formal wear for wheelchair user. This study conducted survey of 162 men using wheelchair who regularly enjoy the sports for disabled people or who work i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The majority of wheelchair user tend to wear garment lying or seating. Therefore, they prefer garments that can be easily put on and off. They were dissatisfied mostly with the size of ready-made garment. More than 75% of the subjects tend to repair the purchased formal wear. Shoulder width and bust circumference are too small, jacket length, sleeve length, and slacks length are too big for disabled men using wheelchair. More than 93% subjects tend to prefer T-shirts, because of comfort and easiness to move. The men using wheelchair consider the function and the hygiene of fabric material for T-shirts as the important end.

Key words : disabled adult men using wheelchair, ready-made garment, comfort, formal wear, T-shirts

1. 서 론

21세기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한다면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1960년대부터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이슈로 여겨왔고 사회적 존재로서 가지는 기회균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통합차원의 복지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 보다는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건축물에 대한 접근, 교통수단과 시설, 분리된 교육과 직업으로부터의 제외, 일반인의 편견,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거부감등이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이다(오혜경, 1999). 여기에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의복 또한 밀접한 사회적 장애의 환경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148,700명으로 2000년의 1,449,500에 비해 699,200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의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 추

세에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 지체 장애인과 뇌 병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127만 이상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체 장애인의 발생 원인은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이 89%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산업자원부의 보고에 의하면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산재 및 기타사고에 의한 여성 보다 남성의 장애 발생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고는 대부분 척수 장애의 원인이 되어 하반신 마비를 가져오고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실망하여 스스로 자아왜곡을 초래하고,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자존심의 저하는 물론 자아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정명실, 1997). 한편, 김혜경(1999)은 적절한 의복의 효과적인 사용은 긍정적인 자아를 이끌어내어 외적인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의복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은 장애인복에 대해 무관심 하였고도 여겨진다. 2002년 우리나라 의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복브랜드는 462개, 남성복 브랜드는 125개, 캐주얼 브랜드는 105개 등 총 1,171개로 조사되었다(한국패션 총람, 2002). 매년 새롭게 브랜드가 생겨나거나 사라지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비장

Corresponding author; Kwang-Ae Park

Tel. +82-55-331-7370, Fax. +82-55-331-7370

E-mail: liebpark@freechal.com

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브랜드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와서 장애인에 대한 국내외의 인권운동과 장애인 정책에 힘입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를 크게 확장되었다(김용득, 1999).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출시키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복이 장애인에게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인 참여활동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이고 편리한 의복뿐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의 의복이 요구되고 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장구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생산된 기성복을 착용할 경우 많은 문제와 불편함이 발생된다. 산업자원부의 연구 조사(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 중 휠체어 사용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함으로 인해 선 자세를 기준으로 제작된 기성복을 착용할 때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Quinn & Chase, 1990). 장지혜(2003)는 신체가 앉은 자세로 변화될 때 실제로 신체치수가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였는데, 길이항목에서는 엉덩이 부위 8 cm, 무릎선 6.45 cm로 신장되었고, 둘레항목에서는 허리둘레가 1.4 cm 신장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된 기성복을 구매할 경우 착용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UN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 즉 5억 이상의 인구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전국의 장애인 수가 약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강위영, 김재익, 1997).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향후 장애인구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 신체적인 특성과 여러 경제적, 사회·심리적 만족을 고려한 의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성인 남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복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의복의 착용 문제점과 불만족 사항, 의복의 선호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시간 앉아 있음에도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휠체어 성인 남자 장애인 의복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인 남자 장애인으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30일 까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

가자(울산), 부산 척수장애인협회, 부산·창원장애인복지관 및 스포츠회관 이용자, 대전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참가자, 부산 장애인직업훈련원생 등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70명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부실한 8부를 제외하고 162부에 대해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한정하였고, 본 설문지 조사에 응답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원인은 소아마비(31명), 척수장애(103명), 뇌병변장애(10명), 절단장애(11명), 기타 근육병, 척추측만증, 중풍 등의 장애(7명)로 구분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남자 장애인을 위한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의복에 대한 필요조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조사로 휠체어 사용하는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의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정숙(1999)의 장애인 의복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과 한국장애인 의사연구소의 자문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휠체어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 연령, 학력, 장애유형, 경제수준, 직업의 유무에 관한 문항을 작성하였고, 장애인의 의복착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의복 착용 시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정도 및 문제점, 의복구매 시 고려하는 점, 착용시 헤어짐에 대하여 각 문항을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또한 장애인 기성복의 필요성, 정장에 대한 착의실태에 관한 문항, 그리고 장애인이 많이 착용하는 티셔츠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질문 등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에 대한 피상적인 대답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설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감독 하에 성의 있는 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1.0 통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고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 대상자의 통계학적 분석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휠체어 사용자인 성인 남자장애인 중 30, 40대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장애원인으로는 척수장애가 63.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성인 남자의 장애발생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61.1%로 가장 높았고 대졸과 함께 82%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보여 주었다. 유재우(2006)는 남자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가 19세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의 발생 시

Table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
연령	20대	18(11.1)
	30대	53(32.7)
	40대	67(41.4)
	50대	15(9.3)
	60대	9(5.6)
	합계	162(100)
장애원인	소아마비	31(19.1)
	뇌병변	10(6.2)
	척수장애	103(63.6)
	절단	11(6.8)
	기타	7(4.3)
	합계	162(100)
학력	무학	2(1.2)
	초등졸	7(4.3)
	중졸	19(11.7)
	고졸	99(61.1)
	대졸	34(21.0)
	대학원졸이상	1(0.6)
합계	162(100)	
직업	전문직	10(6.2)
	영업직	8(4.9)
	생산직	7(4.3)
	사무직	15(9.3)
	자영업	25(15.4)
	무직	56(34.6)
	기타	41(25.3)
	합계	162(100)
월평균소득	월20만원 이하	14(8.6)
	월21-50만원	18(11.1)
	월51-70만원	15(9.3)
	월71-100만원	26(16.0)
	월100-200만원	54(33.4)
	월200만원 이상	35(21.6)
	합계	162(100)
결혼여부	미혼	67(41.4)
	기혼	87(53.7)
	이혼	5(3.1)
	사별	1(0.6)
	기타	2(1.2)
	합계	162(100)

기가 대부분 고등교육이 끝나고 성인으로써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에 발생하므로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3%이고 무직은 38.3%로 나타

Table 2. 착탈의 시 도움 정도와 자세

	구분	빈도(%)
도움 정도	완전히 도움을 받는다	14(8.6)
	많은 도움을 받는다	9(5.6)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	38(23.5)
	전혀 도움을 받지않는다	101(62.3)
	합계	162(100)
자세	바닥에 앉아서	75(46.2)
	누워서	38(23.5)
	휠체어에 그대로 앉아서	32(19.8)
	다른의자에 앉아서	13(8.0)
	일어선 자세	4(2.5)
합계	162(100)	

났다. 월평균소득이 월 100-200만원인 사람이 33.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이 2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도 4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301.9만원의 52.1%로 조사되어 졌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가정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연령임에도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3.2. 휠체어 장애인의 기성복 착의실태 분석

남자 휠체어 장애인이 의복을 착탈 할 때 도움 받는 정도와 자세는 Table 2와 같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하반신의 마비나 절단으로 인해 서 있을 수가 없고, 뇌병변과 척수장애가 심할 경우 사지마비가 나타나서 의복의 착탈의에 불편함을 준다. 착탈의 시 도움 받는 정도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 받지 않는다가 6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가 23.5%로 나타났다. 자세를 살펴보면 바닥에 앉아서가 46.2%로 가장 많고 휠체어 또는 다른 의자에 앉아서가 27.8%, 누워서가 23.5%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는 약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자세로 의복을 착탈 할 경우 불편함과 특정한 부위가 잘 헤어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Table 3은 의복 착용시 많이 헤어지는 부위에 대한 결과인데, 소매 끝(3.72), 지퍼여밂(3.46), 영덩이(3.44), 무릎(3.14), 바지단(3.09) 순으로 많이 헤어진다고 나타났다. 소매 끝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는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소매 끝이 보장구에 쉽게 닿아 마찰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장애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아마비자는 영덩이(3.75)가 가장 많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인은 무릎(4.00)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마비자는 대부분 하반신마비자로 상반신은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주로 영덩이로 기어가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보다 영덩이가 잘 헤어진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을 제작할 때는 잘 헤어지는 부위를 고려하여야 할 뿐

Table 3. 의복 착용 중 헤어지는 부위

구분(명)	팔꿈치	겨드랑	소매끝	지퍼여밈	무릎	영덩이	바지단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31)	3.62(1.17)	3.50(1.25)	3.58(0.92)	3.50(1.21)	3.38(1.21)	3.75(1.29)	3.45(1.22)
뇌병변자(10)	3.00(0.81)	3.00(1.15)	3.86(1.07)	3.00(1.54)	4.00(0.58)	3.42(1.27)	3.71(1.11)
척수장애자(103)	3.38(1.13)	2.63(0.91)	3.73(1.02)	3.51(0.96)	2.98(0.99)	3.32(0.99)	2.91(0.87)
절단(11)	2.62(1.06)	3.50(1.51)	4.00(1.07)	3.25(1.28)	3.12(1.46)	3.75(0.71)	3.12(1.13)
기타(7)	3.75(1.25)	2.75(0.50)	3.50(0.58)	3.50(1.00)	3.25(0.50)	3.25(0.50)	3.25(0.50)
평균(162)	3.37(1.13)	2.88(1.09)	3.72(0.99)	3.46(1.04)	3.14(1.06)	3.43(1.04)	3.09(0.99)

Table 4. 기성복 착용 시 불만족

구분(명)	사이즈	디자인	착탈의	소재신축	여밈장치	가격
	M(SD)	M(SD)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31)	3.84(0.78)	3.16(0.78)	3.00(0.68)	3.09(0.87)	3.06(0.89)	3.32(0.83)
뇌병변자(10)	3.50(0.85)	3.10(0.32)	3.40(1.35)	3.20(0.42)	3.80(0.92)	3.40(0.97)
척수장애자(103)	3.34(0.92)	3.00(0.83)	3.07(0.94)	3.12(0.76)	3.09(0.81)	3.20(0.82)
절단(11)	2.90(0.83)	2.91(1.04)	3.18(0.98)	3.18(0.87)	3.27(1.01)	3.54(0.69)
기타(7)	3.14(0.69)	3.00(0.58)	2.57(0.53)	3.14(0.90)	2.71(0.49)	3.00(0.58)
평균(162)	3.41(0.90)	3.03(0.80)	3.06(0.92)	3.12(0.78)	3.12(0.85)	3.25(0.81)

아니라 장애인에 따라서도 디자인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Table 2)(Table 3).

기성복 착용시 불만족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체적으로 남자휠체어 장애인은 사이즈(3.41)에서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가격(3.25), 소재의 신축성(3.12)과 여밈(3.12), 착탈의(3.06), 디자인(3.03)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별로는 소아마비자, 척수장애자는 사이즈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자는 여밈장치(3.80)에 대해, 절단 장애인은 가격(3.45)에 가장 불만족하였다. 대체로 기성복의 사이즈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 장애인에게 가장 불만족한 요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재활 의사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는 불편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장애인이 참아야 하는 고통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복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격에 대해서도 대체로 약간의 불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Table 1에서 보여 주었듯이 휠체어 장애인의 경제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복구입에 대한 지출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4).

의복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휠체어 남자 장애인의 39.5%가 주로 저렴한 시장에서 구입하였고, 30.9%는 브랜드 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는 11.7%로 나타났고, 기타 방법으로 물려 입거나 기증받아서 입는 것도 9.9%로 나타났다. 사이즈에 맞게 맞춰 입는다는 8.0%로 가장 낮은 비율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맞춰서 입는 것은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성복의 사이즈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비장애인의 체형을 기

Table 5. 의복 구입 방법

구입 방법	구분	빈도(%)
	구입 방법	저렴한 시장에서 구입한다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한다		50(30.9)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다		19(11.7)
사이즈에 맞게 맞춰 입는다		13(8.0)
기타		16(9.9)
합계		162(100)

준으로 제작된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5).

Table 6과 Table 7은 기성복에 대한 치수적합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응답결과이다. 박광애(2005)에 의하면 소아마비자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반신이 발달되어 있고 하반신이 짧고 왜소하고, 척수장애자는 허리에 힘이 없음으로 인해 등이 굽고 배가 앞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기성복이 전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의길이(2.83), 소매길이(2.86) 소매통(2.96), 어깨길이(2.96) 순으로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별로 살펴보면, 소아마비자와 절단장애인은 소매길이가 가장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장애자와 척수장애자는 상의 길이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상의보다 훨씬 치수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 하지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함으로써 하지가 왜소해진 것이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의 중 영덩이품(2.30)이 가장 잘 맞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바지길이(2.40), 살앞뒤길이(2.41), 바지통(2.57), 허리밴드위치(2.62), 허리둘레(2.66) 순으로 잘 맞지 않았다. 특히 소아마비자는 바지통(1.88), 바지길이(1.92)와 영

Table 6. 기성복 상의 치수의 적합성

구분(명)	상의폭	상의길이	소매길이	소매통	어깨길이
	M(SD)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31)	3.00(1.03)	2.67(0.96)	2.50(0.96)	2.54(0.88)	2.63(0.84)
뇌병변자(10)	3.29(0.48)	2.29(0.70)	2.86(0.94)	2.57(0.82)	2.71(0.95)
척수장애자(103)	3.17(0.81)	2.93(0.87)	3.03(0.84)	3.12(0.83)	3.12(0.82)
절단(11)	2.75(1.10)	2.63(0.79)	2.38(0.93)	2.88(0.89)	2.63(0.90)
기타(7)	3.25(0.38)	3.00(0.90)	2.50(0.49)	3.25(0.38)	3.00(0.69)
평균(162)	3.12(0.85)	2.83(0.88)	2.86(0.88)	2.96(0.84)	2.96(0.84)

Table 7. 기성복 하의 치수의 적합성

구분(명)	허리둘레	허리밴드위치	바지길이	엉덩이 폭	살앞뒤길이	바지통
	M(SD)	M(SD)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31)	2.50(0.83)	2.46(0.88)	1.92(0.78)	1.95(0.81)	2.13(0.78)	1.88(0.80)
뇌병변자(10)	2.57(0.79)	2.29(0.76)	1.43(0.79)	2.43(0.98)	2.14(1.07)	2.86(1.07)
척수장애자(103)	2.70(0.87)	2.70(0.81)	2.38(0.79)	2.33(0.83)	2.46(0.75)	2.77(2.44)
절단(11)	2.50(0.93)	2.50(0.76)	2.50(1.20)	2.63(1.30)	2.63(1.06)	2.25(0.71)
기타(7)	3.25(0.50)	3.25(0.50)	2.25(0.50)	2.75(0.50)	3.00(0.00)	3.00(0.00)
평균(162)	2.66(0.85)	2.62(0.79)	2.40(0.87)	2.30(0.87)	2.41(0.80)	2.57(2.04)

덩이 폭(1.95)에서 다른 장애인 보다 훨씬 치수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지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왜소하고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기성복 하의가 대체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치수의 부적합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의복 착용시 가장 큰 불편증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의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Table 6) (Table 7).

Table 8은 기성복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점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평균적으로 착탈의(4.04), 디자인(4.01), 흡수성(3.88), 신축성(3.81), 가격(3.77), 내구성(3.74) 장애부위 감춤(3.29) 순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인지도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원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뇌병변자나 척수장애인은 착탈의가 편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소아마비자나 절단자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흡수성과 신축성

도 의복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되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신체적인 활동이 불편함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고, 휠체어에 앉음으로 인해 신장되는 신체 부위가 선 자세를 기준으로 제작된 의복을 착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흡수성과 신축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휠체어 남자 장애인의 의복을 개발할 때 장애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편안함과 더불어 디자인성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음에도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이면서 위생적인 의복을 개발해야할 것이다(Table 8).

3.3. 정장에 대한 착의실태 분석

휠체어 남자 장애인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정장에 대한 착의 욕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편하고 잘 맞지 않아 정장 착의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 장애의 사회적 활동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

Table 8. 기성복 구매시 고려하는 점

구분(명)	디자인	착탈의	가격	인지도	장애부위감춤	내구성	신축성	흡수성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31)	3.93(0.93)	3.90(0.98)	3.80(0.75)	2.83(0.82)	3.00(1.15)	3.48(0.96)	3.48(0.93)	3.74(0.82)
뇌병변자(10)	3.90(0.88)	4.10(1.10)	3.50(0.71)	2.60(0.70)	2.90(0.57)	3.60(0.52)	3.70(0.82)	3.70(1.06)
척수장애자(103)	3.98(0.82)	4.08(0.75)	3.78(0.82)	2.97(0.94)	3.40(1.10)	3.81(0.78)	3.88(0.84)	3.92(0.80)
절단(11)	4.37(0.81)	3.91(0.94)	3.72(1.10)	2.63(1.03)	3.36(1.12)	3.91(0.70)	3.91(0.83)	3.90(0.83)
기타(7)	4.42(0.79)	4.00(1.15)	3.85(0.69)	3.43(0.53)	3.43(1.27)	3.86(0.90)	4.29(0.49)	4.14(0.69)
평균(162)	4.01(0.84)	4.04(0.84)	3.77(0.81)	2.92(0.91)	3.29(1.10)	3.74(0.81)	3.81(0.86)	3.88(0.81)

Table 9. 정장의 소유 수와 구매 실태

구분	빈도(명)	%	
정장소유 수	없음	13	8
	한 벌	52	32.1
	두 벌	40	24.7
	세 벌	28	17.3
	네 벌	12	7.4
	다섯 벌 이상	17	10.5
	합계	162	100
정장구매장소	시장	20	13.4
	할인마트	47	31.5
	백화점	32	21.5
	대리점	34	22.8
	맞춤	15	10.1
	물려받음	3	2.0
	합계	149	100
정장수선여부	수선하지 않음	31	20.7
	재킷만 수선	4	2.7
	바지만 수선	81	54.4
	재킷·바지 모두 수선	29	19.5
	기타	4	2.7
합계	149	100	
정장구매가격	10만원이하	15	10.1
	10~20만원대	53	35.6
	20~30만원대	45	30.2
	30~40만원대	22	14.7
	40~50만원대	11	7.4
	50만원대이상	3	2.0
합계	149	100	

로 사료됨으로 본 연구에서 정장에 대한 착용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나 있다. 우선 휠체어 남자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장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정장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 13명(8%), 한 벌 52명(32.1%), 두 벌 40명(24.7), 세 벌 28명(17.3%) 네 벌 12명(7.4%), 다섯 벌 이상 17명(10.5%)으로 나타났다. 구매 장소로는 할인마트 31.5%, 대리점 22.8%, 백화점 21.5%, 시장 13.4%, 맞춤 10.1%, 물려받음 2.0%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정장의 가격대는 10-20만원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30만원대 30.2%, 30-40만원대 14.8%, 40만원대 이상 9.4%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정장의 수선 항목에서는 바지만 수선 54.4%, 재킷·바지 모두 수선 19.5%, 수선하지않음 20.7%, 재킷만 수선 2.7%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75% 이상이 구입 한 후 수선하는 것을 볼 때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의 체형을 반영한 정장류 의복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Quinn & Chase (1990)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성복을 착용한다면 의복의 뒷길이는 당겨 올라가고, 앞길이는 남아 주름지게 되어 착용할 때 불편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였다. 정장에 대한 치수 적합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매우작다, 작다, 적절하다, 약간

Table 10. 정장 재킷의 치수 적합성

구분(명)	소매길이	재킷길이	재킷폭	어깨길이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29)	3.07(1.19)	3.62(1.05)	3.03(1.09)	2.93(0.92)
뇌병변자(6)	2.83(1.17)	3.50(0.84)	3.33(1.03)	3.00(1.10)
척수장애자(97)	3.13(0.77)	3.26(0.73)	2.95(0.58)	2.81(0.53)
절단(10)	3.20(1.03)	2.70(0.67)	2.50(0.53)	2.60(0.84)
기타(7)	3.43(0.98)	3.14(1.07)	2.57(0.79)	2.57(0.98)
평균(149)	3.13(0.90)	3.29(0.83)	2.93(0.74)	2.82(0.69)

1=매우작다, 2=작다, 3=적절하다 4=크다, 5=매우크다

Table 11. 정장 바지의 치수 적합성

구분(명)	바지길이	밑위길이	허리둘레	바지통	엉덩이둘레
	M(SD)	M(SD)	M(SD)	M(SD)	M(SD)
소아마비자(29)	4.45(0.74)	4.10(0.77)	3.66(0.94)	4.07(0.80)	3.86(1.09)
뇌병변자(6)	4.17(0.68)	4.33(0.82)	3.00(1.41)	4.00(1.10)	3.17(1.17)
척수장애자(97)	3.21(1.06)	3.02(0.83)	2.97(0.95)	3.25(0.85)	3.19(0.95)
절단(10)	3.67(0.87)	3.11(0.60)	3.20(0.79)	2.78(0.83)	3.00(1.12)
기타(7)	3.29(1.11)	2.86(0.90)	2.71(0.95)	2.86(0.38)	3.00(0.58)
평균(149)	3.52(1.10)	3.29(0.93)	3.11(0.99)	3.39(0.92)	3.30(1.01)

1=매우작다, 2=작다, 3=적절하다 4=크다, 5=매우크다

Table 12. 휠체어 장애인 기성복 정장 필요성과 구매의사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합계명(%)
기성복 정장에 대한 필요성	83(51.2)	64(39.5)	10(6.2)	3(1.9)	2(1.2)	162(100)
구매의사	58(35.8)	81(50.0)	19(11.7)	4(2.5)	0(0)	

크다, 매우크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본 연구대상 중 정장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을 제외한 149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10, 11과 같다(Table 9).

정장 재킷에서는 어깨길이(2.82)길이와 재킷 품(2.93)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길이(3.29)와 소매길이는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지가 많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둘레와 팔둘레가 비장애인 보다 발달하지만(김선희, 1991), 하반신이 마비로 인해 하반신이 왜소하여 엉덩이 길이가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작고(박광애, 2005), 허리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굽어짐으로 인해 앞중심의 길이가 짧아지는 체형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체형의 특성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이 정장을 착용할 때 어깨길이나 품을 맞추면 재킷이 길고, 재킷길이에 맞추어 정장을 입으면 어깨길이와 품이 작음으로 재킷 치수의 부적합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인별 살펴보면 소아마비자와 뇌병변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보다 특히 재킷길이가 길다고 하였다. 하지절단 장애인은 소매길이를 제외하고 재킷길이에서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작다고 하였다(Table 10).

정장 바지는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마비자는 바지길이(4.45), 밑위길이(4.10), 바지통(4.07), 허리둘레(3.86) 모두 다른 장애인에 비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자도 밑위길이, 바지길이, 바지통이 크다고 하였는데 뇌병변자는 신체특성상 의복을 착용할 때 사지가 경직되거나 뒤틀림이 있어 자신의 치수 보다 훨씬 큰 것을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척수 장애자는 바지길이(3.21), 밑위길이(3.02), 바지통(3.25), 엉덩이둘레(3.19)에서는 적절하거나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허리둘레(2.97) 치수는 약간 작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중도 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로 하지가 약해지면서 바지가 헐렁해지지만 반면 운동 부족과 장시간 좌식으로 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기인한다고 판단되어진다. 절단장애인은 바지통(2.28)에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체형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Table 11).

Table 12는 신체적 장애를 고려한 기성복 정장의 필요성과 구매의사에 응답 결과인데 90% 이상이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여 기성복 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기성복 정장이 시판된다면 85% 이상이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정장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장을 개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Table 12).

3.4. 티셔츠에 대한 선호도 분석

장애인이 즐겨 착용하는 의복의 종류로 상의는 주로 착용이

Table 13. 티셔츠에 대한 선호도

	구분	빈도	%
선호도	선호한다	151	93.2
	선호하지않는다	11	16.8
	합계	162	100
티셔츠 선호이유	편안하고 활동적임	101	66.9
	착탈이가 편함	28	18.5
	개성을 살릴 수 있음	15	9.9
	체형에 잘 맞음	4	2.6
	관리가 쉬움	3	2
	합계	151	100
티셔츠 소재의 장점	부드럽다	45	27.8
	가볍다	25	15.4
	신축성이 있다	40	24.7
	구김이 잘 안감	24	14.8
	따뜻하다	27	16.7
	기타	1	0.6
착용 불편족 요인	합계	162	100
	세탁 후 변형	55	33.9
	울 굵힘	21	13.0
	보푸라기	56	34.6
	색이변함	23	14.2
선호하는 소재	기타	7	4.3
	합계	162	100
	면100%	94	58.0
	폴리에스테르 100%	5	3.1
	면/스판덱스혼방	10	6.2
	면/폴리에스테르혼방	32	19.8
선호하는 색상	기능성합성섬유	21	13.0
	합계	162	100
	흰색	48	29.6
	검정색	38	23.5
	곤색	22	13.6
	브라운색	21	13.0
선호하는 실루엣	카키색	12	7.4
	붉은색	21	13
	합계	162	100
	몸에 완전히 밀착형	8	4.9
	적당한 여유가 있으면서 몸에 피트 되는 형	132	81.5
	박스형	11	6.8
선호하는 여밈	실루엣에 상관 없이 유행하는 옷	11	6.8
	합계	162	100
	라운드형	57	35.2
	반지퍼 라운드형	26	16.0
	오픈지퍼 라운드형	25	15.4
	반폴라형	16	9.9
선호하는 밑단	반지퍼 반폴라형	16	9.9
	오픈지퍼 반폴라형	9	5.6
	V-자형	13	8.0
	합계	162	100
	고무단	24	14.8
	겹단	72	44.4
선호하는 밑단	옆트임 있는 것	58	35.8
	겹단에 끈이 끼워져 있는 형	8	4.9
	합계	162	100

편한 면 티셔츠로 조사되어졌다(신정숙, 1999). 본 연구에서 티셔츠에 대한 휠체어 성인 남자의 일반적인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휠체어 성인 남자 장애인의 93%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셔츠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안하고 활동적인 면(66.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입고 벗기 편해서 18.5%로 나타났다. 티셔츠 소재의 장점에 대해서는 부드럽다 27.8%, 신축성이 있다 24.7%, 따뜻하다 16.7%, 가볍다 14.8%,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티셔츠 착용에 대한 불만으로는 보푸라기 발생(34.6%)이 가장 많았고, 세탁 후 변형(33.9%)도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색상으로는 흰색(29.6%), 검정색(23.5%), 곤색(13.6%), 브라운색(13.0%), 붉은색(13.0%) 순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에서는 적당한 여유가 있으면서 몸에 피트되는 형이 81.5%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너무 여유가 있는 박스형은 오히려 휠체어에 낄 수 있고, 밀착형은 몸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티셔츠의 여밈 모양으로는 라운드형을 35.2%로 가장 선호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반지퍼 라운드형 16%, 오픈지퍼 라운드형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의 밑단 모양은 겹단으로 처리된 것 44.4%, 옆트임이 있는 것 35.8%를 대부분 선호하였고, 고무단은 14.8%로 나타났다. 겹단과 옆트임이 있는 것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신장되는 허리둘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외관상으로도 허리를 커버할 수 있지만, 고무단은 허리를 졸리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Table 13).

Table 14는 티셔츠를 구매할 때 휠체어 남자 장애인이 고려하는 점을 파악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휠체어 남자 장애인은 티셔츠의 촉감(4.25)과 구김방지(4.24)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는 것(4.17), 활동성(4.05), 보풀이 생기지 않는 것(4.01), 통기성(3.99), 물세탁(3.93)에 대해서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휠체어 남자 장애인은 디자인(3.70)과 색채(3.68), 가격(3.43)을 고려하지만 소재의 기능성과 위생

성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Table 14).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 장애인의 의복 실태를 분석하여 의복 착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복에 대한 궁극적인 욕구, 경제적 조건, 의복의 선호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의복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 40대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으로는 척수장애가 63.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성인 남자의 장애발생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졸이 61.1%로 가장 높았고 대졸과 함께 82%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보여주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3%이고 무직은 38.3%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월 100-200만원인 사람이 33.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었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도 45%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가정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연령임에도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휠체어 장애인 의복을 착용할 때 62.3%는 전혀 도움 받지 않았고, 착용의 자세는 바닥에 앉거나 휠체어 또는 다른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하였다. 의복 착용시 많이 헤어지는 부위로는 소매 끝, 지퍼여밈, 영덩이, 무릎, 바지단 순으로 많이 헤어진다고 나타났다. 장애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아마비자는 영덩이가 가장 많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인은 무릎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착용시 불만족에 대한 결과는 사이즈가 남자 장애인에게 가장 불만족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 소재의 신축성, 여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80% 이상 기성복을 구입하였는데, 구입 장소로는 저렴한 시장

Table 14. 티셔츠 구매시 고려하는 점

구분(명)	디자인 M(SD)	색채 M(SD)	구김방지 M(SD)	가격 M(SD)	물세탁 M(SD)	활동성 M(SD)	통기성 M(SD)	보풀방지 M(SD)	정전기 M(SD)	촉감 M(SD)
소아마비자 (31)	3.61 (1.05)	3.58 (0.77)	3.77 (0.90)	3.32 (0.77)	3.61 (0.96)	3.77 (1.16)	3.74 (0.78)	3.81 (0.68)	4.16 (0.61)	4.06 (0.68)
뇌병변자 (10)	3.60 (0.76)	3.50 (0.98)	3.90 (0.69)	3.00 (1.07)	3.70 (1.07)	3.70 (1.11)	3.80 (0.82)	3.60 (1.13)	4.00 (0.90)	4.00 (0.38)
척수장애자 (103)	3.68 (0.88)	3.73 (0.68)	4.47 (0.68)	3.47 (0.79)	4.01 (0.71)	4.13 (0.70)	4.05 (0.70)	4.08 (0.74)	4.16 (0.77)	4.29 (0.70)
절단 (11)	3.91 (0.76)	3.72 (0.46)	3.73 (1.19)	3.64 (0.74)	4.27 (0.52)	4.18 (0.46)	4.18 (0.71)	4.09 (0.83)	4.27 (0.74)	4.36 (0.52)
기타 (7)	4.00 (0.50)	3.71 (0.58)	4.29 (0.82)	3.71 (0.58)	3.86 (0.50)	4.43 (0.50)	4.29 (0.82)	4.29 (0.82)	4.57 (0.58)	4.57 (0.58)
평균(162)	3.70 (0.89)	3.68 (0.70)	4.24 (0.77)	3.43 (0.79)	3.93 (0.78)	4.05 (0.83)	3.99 (0.73)	4.01 (0.76)	4.17 (0.73)	4.25 (0.67)

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브랜드 매장을 이용하는 구매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맞춰 입는 경우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3. 기성복에 대한 치수적합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의에서는 상의길이, 소매길이, 소매통, 어깨길이 순으로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의는 상의보다 훨씬 치수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 중 엉덩이 품이 가장 잘 맞지 않았고, 바지길이, 앞뒤길이, 바지통, 허리밴드위치, 허리둘레 순으로 잘 맞지 않았다. 특히 소아마비자는 바지통, 바지길이와 엉덩이 품에서 치수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는 착탈의, 디자인, 흡수성, 신축성, 가격, 내구성, 장애부위 감춤 순으로 나타났다.

4. 정장에 대한 착의실태 분석에서 휠체어 남자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장의 수는 한 벌이 가장 많았고, 두 벌, 세 벌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장소로는 할인마트, 대리점, 백화점, 시장, 맞춤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정장은 75% 이상이 구입한 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 재킷의 치수적합성에서는 어깨길이를 재킷 품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길이를 소매길이는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여 기성복 정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기성복 정장이 시판된다면 85% 이상이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티셔츠에 대한 선호도 분석에서 휠체어 성인 남자 장애인의 93%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티셔츠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안하고 활동적인 면이 가장 많았고, 티셔츠 착용에 대한 불만으로는 보푸라기 발생이 가장 많았고, 세탁 후 변형도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에서는 적당한 여유가 있으면서 몸에 피트 되는 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밈 모양으로는 라운드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밑단 모양은 겹단으로 처리된 것, 옆트임이 있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였다. 티셔츠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점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티셔츠의 촉감과 구김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는 것, 활동성, 보풀이 생기지 않는 것, 통기성, 물세탁에 대해서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휠체어 남자 장애인은 디자인과 색채, 가격을 고려하지만 소재의 기능성과 위생성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장애인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의복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지만, 비장애인의 표준 치수를 기준으로 생산된 기성복은 착탈의의 기능적인 면이나 치수 면에서 휠체어 남자장애인에게 부적합함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정장은 다른 기성복 보다 신체를 정형화시키기 때문에 서 있는 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제작된 정장은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로 느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휠체어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맞게 맞춤으로 주문제작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기성복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주문 제작의 비용이 기성복 보다 크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에 있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참여활동이 증가 되는 현 시점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성복을 개발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성복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휠체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의 장애범위 그리고 체형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후속과제로 남는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53-C0069)

참고문헌

강위영, 김재익. (1997). 지체장애인의 직업의식 조사연구. *재활과학연구*, 13(1), 1-43.

김선희. (1991). *지체장애인의 체형과 의복에 관한 연구-보장구를 사용하는 남자장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득, 김진우. (1999). 장애인 복지의 변천과 전망. *사회복지연구*, 14, 71-73.

김혜경. (1989). *신체장애와 특수 의복*. 서울: 교문사.

박광애. (2005). *휠체어 여성 장애인의 체형분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정숙, 김인경, 최정옥. (1999). 장애인 의복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복식문화연구*, 7(2), 304-314.

오혜경. (1999). 장애인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4(4), 7-33.

유재우. (2006). 장애인 인체치수 및 동작 패턴 측정조사 사업최종보고서(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장지혜, 박광애, 양정은, 윤은정. (200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하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지*, 6, 243-256.

정명실. (1997).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식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패션 총람. (2002). pp. 41-42.

Quinn, M. D., & Chase, R. W. (1990). *Design without Limits*. Philadelphia: Drexel Design Press. Drexel University.

(2008년 6월 16일 접수/ 2008년 6월 30일 1차수정/
2008년 8월 8일 2차수정/ 2008년 8월 12일 게재확정)